

# 미 초교서 총기난사...6명 숨져

### 범인 총기 3정 무장, 경찰에 사망 백악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바이든 “공격무기금지법 처리를”

미국 테네시주(州)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 초등학교인 커버넌트스쿨에서 27일(현지시간) 오전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어른 3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14분 만인 10시 27분께 총격범을 제압했다. 총격범은 경찰과의 교전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학생 등 희생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 초등학교가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며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거나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총격범이 10대 여성으로 보인다고 했다가 확인 결과 이 지역과 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다.

경찰은 총기난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총격범은 돌격 소총 2정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학교의 교회로 안전하게 대피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만났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존 쿠퍼 내슈빌 시장은 트위터에 “오늘 아침 내슈빌은 공포에 빠졌다”며 “도시 전체가 희생자가 죽고 함께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2001년 설립됐으며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약 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사 수는 33명이다.

학교는 내슈빌 도심 남부의 부유한 그린힐스 지역에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벤티 초등학교 총기사건 등 미 전역에서 총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벌어졌다.

미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129번째다. 총격범을 빼고 4명 이상이 희생되면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미국은 작년 3월 19일 100번째 총기 난사 사건을 기록했고, 2021년에도 3월 말에 100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2018~2020년은 5월 말에 100번째를 기록했다. 그만큼 올해 총기난사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청 여성 비즈니스 서밋 행사 연설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가족에게 최악의 악몽이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돌격 소총 등 공격무기 금지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신원 조사 시스템의 허점을 막고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아이가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대화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IAEA 사무총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라피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동남부 자포리자주 드니프로 수력발전소를 방문하며 대화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점령중인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구역 설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가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차·기아 ‘도난 방지 장치 미비’ 제소

### 미 세인트루이스시 “공공안전 위협”

미국 일부 도시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차량 도난 방지 장치 미비와 관련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는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업계 표준인 차량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시에 따르면 이 도시는 미국에서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연방 소송을 제기한 6번째 도시다. 앞서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이 두 회사의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세인트루이스시는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수백만 대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세인트루이스에서 현대차나 기아의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는 총 4,500여건 접수됐다. 이 기간에 현대차·기아의 차량이 시내 전체 도난 차량의 61%를 차지했으며, 차량 절도 시도 건수 중에서는 88%에 달했다.

현대차·기아 차량의 도난 급증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도시의 도난 차량 건수가 전보다 128%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티샤우라 존스 세인트루이스시장은 “기아와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 빠뜨리고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이런 태만의 대가를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트래이스 세인트루이스 경찰서장은 “기아와 현대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급증은 다른 법 집행에 전념해야 할 자원을 절도범을 잡는 데 쏟게 하는 등 경찰 업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총리 “분열 피하고자 사법정비 연기”

### 야권 “진정한 입법 중단이면 대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파 연정에서 추진해온 ‘사법 정비’ 입법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야권과) 대화를 위해 타협아 옷을 갖기로 했다.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3차 독회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내전을 피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네타냐후와 면담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측은 입법 절차를 크네세트(의회)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위험한 길

길에 서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해온 야권을 겨냥해 “나라를 갈라놓는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있다”며 “하지만 나는 나라를 갈라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권 지도자인 아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만약 입법이 진짜로 그리고 완전히 중단된다면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과거 (네타냐후의 거짓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의 말에 속임수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어제 네타냐후가 측근들에게 진정한 입법 중단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 “북, 수중·공중서 핵위력 과시...패션쇼하듯 무기 시험”

### BBC “추적·요격 어려워져”

북한이 최근 수중, 공중, 지상에서 핵무기를 마치 ‘패션쇼’ 하듯 시험 중이며, 이에 따라 추적이나 요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8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엘리엇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북한이 최근 2주 간 다양한 핵무기를 시험하면서 “패션쇼 같은 행보”를 이어간다고 진단했다.

이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당시 입었던 외투가 명품 브랜드 ‘디올’로 추정되는 가운데 나온 비유이기도 하다.

북한은 24일 관영매체를 통해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을 전격 공개했으며, 지난 22일에는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도 했다.

또 19일에 발사한 전술탄도미사일(SRBM·KN-23)이 지하에 땅을 파서 만든 원통형 시설(사일로)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 상태다.

김 부소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같이 새롭고 더 정교한 무기들을 선보였다는 점에

**북, 핵무인수중공격정·전략순항미사일 폭발 시험**  
조선중앙통신 24일 보도 내용

**핵무인수중공격정(시험일차 3월 21~23일)**  
리원군해안에서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 적 항구 가장 홍원만수역 목표점 도달 후 시험용전투부 수중폭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명명**  
\*러시아 공개 수중 드론 또는 핵 추진 어뢰 '포세이돈'과 유사

**전략순항미사일(22일)**  
핵전투부 모의 시험용전투부 장착 '화성-17형' 2기와 '화성-2형' 2기, 동해 설정 1,500km와 1,800km 계선 거리 모의 타원 및 '8'자형 비행계도로 비행, 목표 타격

기종별 각각 1발씩 고도 600m 공중폭발 타격방식 적용

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BBC는 전했다.

김 부소장은 “이전에 우리는 그들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다거나, 지하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북한 무기들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

하는 것은 사전 감지가 어려우며, 발사 뒤에도 저고도로 비행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양육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말했다.

BBC는 이런 진단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우리를 공격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것이라면서도 그가 군사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의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